

편집국에서



김기현 편집국장

2020년 한 해가 설 연휴를 보낸 후 본격 시작된 느낌이다. 올 한해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지난해 제주는 감귤, 마늘, 양배추를 비롯한 농산물에서부터 광어와 돼지고기 등 수·축산물에 이르기까지 1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어 부동산·건설경기 위축, 관광업 침체까지 동반돼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였다.

새해에도 우울한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치사율 100%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으로 제주 경제가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을 겪

2020 새 출발... 그래도 희망이다

을 처지다. 제주가 국제관광지이다 보니 지역사회 불안감은 늘 수밖에 없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생채기를 내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도내 호텔 예약객 대거 취소사태에 단체 행사 축소, 마스크 구입 대란 등에 이어 향후 상당기간 지역경제 악영향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주사회 위기는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저해할 요인들이 연초부터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제주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져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였다는 현실이다.

최근 국제통계의 2018년 신고분 종합소득자료 분석결과 도내 상위 10% 종합소득이 평균 1억6423만원인데 반해 하위 10%는 평균 103만원으로 15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194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 큰 격차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제주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달라지는 인구 구성 요인도 미래 제주 발전에 변수로 등장했다. 호남 통계청 분석결과 오는 2047년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전체 36만1000가구의 36.4%인 13만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 사회가 향후 30년도 안돼 4인 가족 중심에서 나홀로 1인 가구로 바뀐다는 얘기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다 결혼 기피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예상되는 가구형태 변화로, 지금부터 인구와 주택은 물론 경제·사회적 영향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주사회는 이제부터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도가 이를 의식하듯 새해 최우선로 도정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화'로 삼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새해 시무식을 오일 시장에서 가졌고, 올해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열렸다는 점 자체가 평

가 받을 만 하다.

농업 분야에선 반복되는 월동채소(무) 과잉재배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생산농업협회가 서귀포시와 추진하는 '키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눈여겨 볼 새 시책이다. 청년농업인이 월동무 재배를 않고 키위 재배에 나설 경우 각종 시설 지원 및 품종과 재배 매뉴얼보급, 전량 농협 구매 등 온갖 지원책이 뒤따라 진일보한 농업시책으로 꼽힌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려는 씩씩한 자세가 떠올러지는 대목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지나고 보니까 역경이 놀라운 축복이더라"고 자신의 지난한 삶을 회고했다. 제주 사회가 경제·사회적 위기로 역경에 처해 있지만 새해는 작은 곳에서부터 희망을 노래해 언젠가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

사설

단속 비웃듯 늘기만 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정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등을 불법하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불법 영업에 국가 공기업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지만 단속은 겉도는 실정입니다. 적발된 곳은 안거리와 바깥거리로 된 제주 전통가옥 구조를 살린 독채형 펜션을 이용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에 해당합니다. 대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불법 숙박영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독채펜션을 활용한 불법 영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도 집계 결과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하루 1건 이상 적발되는 셈입니다. 미분양주택 급증에다 과잉공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불법 숙박업이 활개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속 속도도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태를 방지할 경우 시장의 혼탁·무질서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불법 영업장이란 점에서 위생과 안전상의 허점뿐만 아니라 투숙객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한 불법 숙박영업은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불법 숙박업소들이 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예약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규정 어기고 예산 낭비하는 '요지경 행정'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요지경은 가관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인 후 되파는 등 투기 의혹이 짙은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등 요지경 세상이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농업법인인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2018년 3~10월 6필지를 매수한 후 매도해 55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겼습니다. 투기용으로 농지를 사고 팔았다는 의심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또 서귀포시는 2018년 5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시공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용역 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검토를 요구했는데 이마저 깔아뭉

졌습니다. 결국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3억여원 가량 투입된 용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심지어 건설공사가 착공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를 멋대로 변경해 2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지 납득이 안됩니다. 엄연히 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요청까지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3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행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행정이 안이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경사조치도 엄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검토를 요구했는데 이마저 깔아뭉

열린마당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받으세요



강형주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중에 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년에 1월, 3월, 6월, 9월 총 네차례 진행됩니다.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됩니다.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회만 하면 됩니다. 신청 후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를 냈다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라면 다음년도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0%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익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할 납부한 차량세환급금 받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1월, 늦지 않게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탐라입춘굿·정기연주회 등 주요 행사 취소

읍면동 연두방문도 연기

○...제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장의 '2020년 읍면동 연두방문'과 2월 주요 행사를 연기.

시는 30일 2월초 예정됐던 고지서의 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추자·우도면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2월중 예정된 탐라국입춘굿 행사 및 도립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의 문화예술행사로 취소.

제주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고대모기자

'신종 코로나' 바뀌는 선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선거 운동 풍경도 변화 조짐. 국내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과의 접촉

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 축소, 약수 자제, 마스크 착용,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선거 운동으로 인한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오은지기자

불법 숙박영업 운영자 고발

○...서귀포시가 도내 한 공기업 직원이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불법 숙박시설을 30일 자치경찰에 고발.

문제의 시설은 제주 전통가옥 형태인 안거리와 바깥거리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그동안 숙박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SNS를 통해 모객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3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공기업 직원이 가족을 도우려 한 일이라는데 누가 실질 운영자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부고 김두행(자영업) 어머니 여신송씨 태순(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9일 04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31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1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남 편 김명권(배)
아 들 김두행 며느리 이영숙
두석 윤여진
병수 고현자
딸 김미성
정선
정자
\* 연락처: 김두행 010-5431-2289
김두석 010-9950-7071
김병수 010-3696-0099
김미성 010-3480-6545
김정선 010-9971-5667
김정자 010-5382-6545

부고 김정주(前 제주특별자치도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장) 어머니 광산김씨 경화(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9일 05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일(일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3일(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소재) 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해안동 선영
아 들 김정주 며느리 양기열
형주 고금란
흥주
딸 김영실 사 위 조주훈
애실 고영호
손 자 김영민
세민
손 너 김은영 은지
\* 연락처: 김정주 010-3692-4095
김형주 010-3693-7252
김흥주 010-9743-7252
김영실 010-3691-2207
김애실 010-4460-616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창생(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31일
아 들 박철홍 며느리 문영실
철수 오숙영
철성 최애란
철원 감미영
딸 박효정 사 위 현태진
효순 효순 안신일
진희 진희 안창보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컴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를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